

제8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5. 26(화) 14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노승범, 박상희, 성선옥, 설휘
이경모, 이용철, 이원경, 전항섭, 현용순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8건 16작품(조각 12, 회화 4)
[신규 5건, 재심 1건, 위치변경 2건]
- ◆ 결 과 : 승인 16작품

☐ 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- 2015년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9명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<위원장>
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- : 1번 작품부터 보겠습니다. 소통입니다.
- : 이 4작품들은 전부 통일성이 없이 구성되었습니다.
- : 작품들이 이렇게 구성된 것은 작가나 건축주의 탓은 아닙니다. 심의기관에서 사전에 여러 작품을 주제적으로 통일성 있게 기획하도록 요구를 하거나 자료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.
- : 아파트의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수도 있습니다. 예술의 속성을 다양성으로 보면 자유롭게 요구하는 바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
- : 4번작품의 경우 브론즈가 잔디위에 올라가 있는데 바닥에 단이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오브제 자체를 인상을 강하게 주어야 하는데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베이스차원인거 같습니다.
- : 잔디위에 작품을 바로 올리면 더 돋보일 것 같고, 비고란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만, 넓게 앉아서 의자형식으로 작품 주변에 앉게 여유롭게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: 잔디위에 놓으면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. 차라리 높이는 게 낫습니다.
- : 차라리 단을 둥글게 해서 앉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: 잔디가 아닌 페이빙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맞을거 같습니다.

니다.

- : 조형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좌대를 동그랗게 보완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
- : 페이빙은 어떤걸 말하는 건지 조건 제시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심의대상 총괄에 나와 있습니다.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: 작품은 좋은데요. LED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.
- : 유지보존계획이 잘되어 있는데요.
- : 향후 몇 년간 보존이 잘되도록 AS보증이 되어 있나요?
- : 보통 문제가 있으면 작가가 잘 교체를 합니다.
- : 안에 영상작업이 들어가면 1년 동안 같은 작품이 계속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. 작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: 여의도에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 꺼져 있는데 흠뻑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.
- : 영상이 특히 유지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작품의 경우는 영상이 꺼져 있어도 리듬감이 있어서 괜찮을거 같긴한데요.
- : 영상이 자체에 빛이 안나오게 될 경우에는 형태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빛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내부에서 영상을 틀어야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
- :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밤에 방치하는 거 보다는 비고란에 조건을 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.

- : 영상이 나오지 않을때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
- : 다음 3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: 매달아 논거 같은데 비바람 불때 안전할까요
- : 환봉으로 설치했다고 쓰여 있는데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
괘창을거 같은데요. 은근히 흔들려서 풍경소리가 나게 연출
을 한거네요. 재밌게 친근하게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.
- : 3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: 조명이 들어가면 움직인다고 되어 있네요.
- : 수산시장의 건물의 특수성과 잘 어울리게 한거 같습니다.
- : 이 가격으로 제작이 될지 모르겠네요.
- : 폴리카보네이트가 자체 빛이라든가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이
야기는 있는데요.
- : 말씀 없으시면 채점해주시기 바랍니다.
- : 심의도서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규정이 필
요합니다. 규정대로만 내야지 그 이상의 자료가 들어가면
심의가 더 어렵습니다.
- : 재료의 안전성이나 보완을 위해서 첨부를 한거 같습니다.
- : 서울시에서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요. 페이지 20을 넘지 않
아야 한다던지, 규정이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.
- : 신소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작가가 성의를 보인걸로 보면
조을거 같습니다.
- :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회화작품입니다. 호텔입니다.
- : 호텔 로비에 화사하니 좋은거 같습니다.
- : 좀 혼한 작품인거 같고, 작품성에서 고민좀 해봐야 할거 같

습니다.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.

- : 1번 작품은 이렇게 작품을 하는 분인거 같습니다.
- : 분위에 있거나 높이 있는걸 보면 마땅히 걸 공간이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.
- : 이러면 접근성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.
- : 너무 높이 단거 같습니다.
- : 그림을 걸다 보면 안전성 때문에 높이 다는 경우가 많습니
다. 외국에도 높이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: 3, 4번 작품은 좀 내려도 좋을거 같습니다.
- : 말씀 없으시면 채점하시죠. 4번 작품 검토해주시죠. 유지보
존계획서는 글씨가 작아서 보이질 않습니다.
- : 안전하기만 하다면 약간 흔들려도 재밌을거 같습니다.
- : 애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다치지 않을까 싶은데요.
- : 이 형태라면 번개를 맞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.
- : 산악지대 등에 번개가 주로 칩니다. 번개치는 지역의 통계
가 나와 있습니다.
- : 작품의 이미지 등이 괜찮습니다. 오히려 높이 올라가면 떨어
어질 수도 있는데요. 바닥에 있는게 안전성이 있을거 같습
니다. 안전성에 있어 바닥에 틈이 있어서 손이 낄다던지
위험이 있으니까 좀 메꾸도록 하면 어떨까요.
- : 오피스텔도 아니고 사실 아파트인데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공
간이라 바람직하진 않습니다.
- : 바닥을 달팽이 모양을 막고 우측부터 올라가면서 벌어지게
하면 좋을거 같습니다. 작품의 컨셉과도 어울리고요.

- : 위원분들이 조건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.
- : 이게 지도 마크인거 같은데 구글이라던지 이런 마크를 써도 무방한건가요
- : 이 마크는 구글의 지도표시 마크이구요. 작가가 구글과 협의하여 사용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.
- : 작품이 심플하고 괜찮은거 같습니다.
- :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재심작품입니다. 지난 회의 때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.
- :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
- :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.
- : 다음에는 위원들도 다 같이 이유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
- : 네 위원님들이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: 명패가 25cm인데 좀 작습니다. 30cm는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.
- : 스테인레스 주물이 국내에서 이렇게 잘 나올까요. 작품이 설치된 후에도 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
- :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.
- :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. 위치변경으로 가부만 결정해주시면 됩니다.
- : 심의도서에 작가명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.
- : 위치변경은 작가명이 기재되어도 상관없습니다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16개 작품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